

□ 시리즈 — 인문학의 부활을 꿈꾸며

'의도적 파괴' 아닌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다

교수 · 학생간 일대일 교육, 인문학 존속 · 심화에 기여해

이 석 우

(사학과 교수)

외 국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라는 질문은 다른나라에서의 인문학의 오늘을 어떤 상황인가 하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그에 대한 답을 하기전에 인문학 위기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부터 몇마디 언급하겠다. 왜냐하면 본 주제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무엇이 인간다움이며

왜 그래야 하는가를 묻는

가치중심적 학문이다

요컨대 인문학의 위기는 바람직한 것이 결코 아니다. 세상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도 나쁜 조건들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떠밀려 나가는 것이 수없이 많다.

동지 공간이 필요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공기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업화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썩고 있지 않은가.

인문학의 가치를 의심하는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인문학은 과학성이나 객관적인 연구방법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학문의 기초를 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학적 학문 접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파악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학문이 자연과학에서처럼 보편적, 법칙적이지 못하고 규범적, 개별적인 인문학은 그점에 있어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거두절미하면 인문학은 자연과학적 기준으로 잴 수 없다. 과학화, 법칙화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이거나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사랑, 신뢰, 정직, 창조성, 슬픔과 기쁨의 감정, 정신적 보람 같은 가치와 본질들은 자연과학적 법칙화할 수 없지만 진정 인간에게는 소중한 것들이다.

인문학은 무엇이 인간다움이며 왜 그래야 하는가를 묻는 가치중심적 학문이다.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회의적이며 반성적이고, 그 자체를 모든 인간사에 적용된다. 그래서 인문학에게 자연과학적 법칙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기란 어렵다.

자동차나 엘리베이터처럼 당장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무엇이 바람직한 인간의 문제도 인간의 세계관, 도덕성, 정신의 훈련 등에 필수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용한 부분이다.

오늘날 인문학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은 실용-과학주의 물량적 발전의 요구하는 힘의 논리, 적어도 손익계산과 같은 자본논리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인문학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자연과학과 동일하지 않은 기초 위에 서있기 때문임을 상기해야겠다.

이 점에서 영국이나 벨기에, 프랑스, 독일 같은 데서 무엇보다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 즉, 인문학을 보는 태도이다. 인문학이 비록 쇠퇴의 상황에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한 인식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존하려 하고있고 적어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영국이나 벨기에의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교수직의 존속을 꼭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다. 수강생이 없어도 연구로서 강의가 보충되며, 수강생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강좌가 개설된다.

자본의 논리가 대학에

적용된다면

대학의 인문주의가

밀려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레로 옥스퍼드대학의 All Souls College 같은 경우 학생은 한명도 없이 단지 2백여명의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설립때부터 이러한 체제)

이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지만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있고 College 자체가 자체기금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 일

이다. 연구하는 대학은 교수가 연구할때 비로서 이루어진다.

정부나 기업체, 독지가들에 의한 기부금으로 유지 성장되고 있는 석좌교수제도 인문학 분야의 석학을 배출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는 유럽의 일부 대학들은 Tutorial system을 견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수와 학생간의 일대일의 교육으로 인문학의 존속과 그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교수들의 연구가 지속적이고 깊어져서 그것들이 언제나 저서로 출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문학이 존속되는 아주 확실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세계적인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는 교수 연구의 지원과 동시에 그의 연구성과 발표를 제공하는 통로이다.

대학에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는 수준높은 세미나에는 그 자리의 70% 이상을 교수들이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 수준높은 공방과 토론은 학문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하나 구미에서 가장 상위급에 속하는 전문공부는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또 엘리트 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알려져 있듯이 구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에 진학할것인지

궁심는 순서

1. 인문학 위기의 주원인
2. 인문학의 가치
3. 외국의 인문학 위기
4. 인문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 이들은 인문학의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습해 나간다.

취업전선에 종사할것인지가 결정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방법도 수능 시험과 같은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도덕성 회복운동,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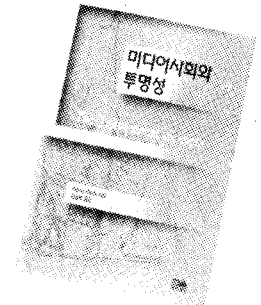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적 테스트 보다는 고등학교 성적이 그 선발 기준이 된다. 대학 입학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고등학교 과목이 인문학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입시체도가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인문학의 창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대학에 적용 된다면 대학의 인문주의가 밀려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성격이 다른 학문은 성격이 다른 논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성 회복운동,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 서평 — 미디어 사회와 투명성



지아누 바티모 원저
김승현 역
한울 펴냄

후기 모더니티 사회의 투명성을 찾아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갖가지 사건들은 호사가들에게 '세기말'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양념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위기에서 윤리부재까지, 반면에 환상적인 테크놀로지들이 제공하는 유토피아가 존재하는 현대는 그야말로 수백년간 지속되어온 근대사회의 끝무렵을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절망적인 인식론적 공황 상태에서도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들은 새로운 천년의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가 거대담론을 무기로 획일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었다면, 하루에도 수천, 수만가지의 정보와 이미지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의 무정부주의적 상태는 또다른 질서를 세워가는 단초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탈 근대적 사상이자 바티모의 "미디어 사회와 투명성"(원제: The Transparent Society)은 바로 후기모더니티 사회의 투명성을 보편화된 매스미디어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찾고자 한다. 바티모는 비록 이 책에서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지만 미디어가 연출해내는 복잡함과 무질서는 바로 현대사회의 자화상이자 인간해방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명확한 자기인식이나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마당에서 이제 해방의 모델은 동요와 다양성, 그리고 극단적인 현실원리의 붕괴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근대사회가 공고하게 다져왔던 '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 '신화'를 깨뜨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기모더니티 사회가 근대사회의 신화를 깨버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또다른 신화는 시작되기 마련일 것이다. 따라서 후기모더니티 사회의 투명성은 현재 수준에서의 탈 신화를 지속적으로 탈 신화화하는 가운데서 획득된다. 그런 의미에서 벤야민과 하이데거의 혼돈과 비일관성은 바티모에게 적절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그러한 혼돈과 비일관성이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사회다. 왜냐하면 현대를 정의하는 매스미디어가 예술작품의 혼돈과 동요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티모는 바로 매스미디어의 무질서적인 성격에서 후기모더니티 사회를 전망하는 것이다. (김종현 편집자)

신 간 내



39가지의 읽으면 20대에 성공이 보인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에게 특히 유익한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이나 조직 사회의 구성원은 물론 개인 사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도 권해 볼만한 책이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 문화 마당 펴냄

역사속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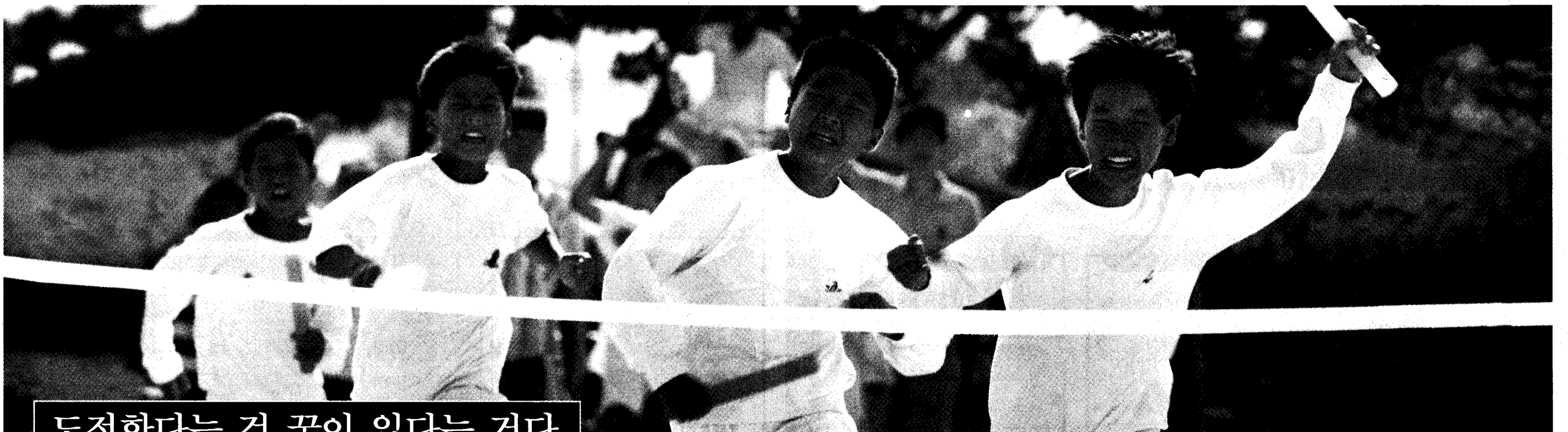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옛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소개된 세계의 명인, 속담들을 살펴봄으로써 아름다운 한국인의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한실 지음, 박우사 펴냄



자기의 테크놀로지

푸코는 연구 방향을 바꾸기 위해 82년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책은 세미나 발표를 받아 적은 필사본과 강의 대본을 번역했다. 미셀푸코 외 지음, 동문선 펴냄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



도전한다는 건 꿈이 있다는 거다.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다. 어릴적 운동회때 계주시합, 팽팽한 긴장 속에 느꼈던 짜릿한 승부의 충동. 거기에 역전의 기대와 그 속에 발휘될 자신의 탁월한 활약에 대한 꿈이 있다. 인생의 승부도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순서대로 정해지지는 않는 법.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최고의 도전이야말로 꿈의 의미를 아는 젊음의 선택이다.

선경은 에너지 · 화학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 새로운 자원개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선경그룹 주요회사 SK는 유공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에너지·화학 SK/선경인스트루먼트/SK/에너지자재/SK/가스/스캐빈지 ■정보통신 SK 텔레콤/선경유통/SK 컴퓨터통신/대한텔레콤/이리온코리아 ■금융 SK증권 ■건설 SK건설 ■호텔·레저 SK해운대리조트 ■물류 SK해운 ■중합사업부(주)선경

*선경은 연중 상시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선경채용상담실 (02)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용인로2가 36-1 선경빌딩 1층
•Internet 채용 Homepage http://www.sk.co.kr

SUNKYONG
선경그룹